

2014 문화계 결산 ① 공연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5월 연극 '푸르른 날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콘텐츠 등 올 한해 지역 문화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 2014년 지역 문화계 흐름을 공연, 미술, 문화과 문화제 등 3차례에 걸쳐 나눠 신는다.

수장 바뀐 시립단체 의욕적 행보



2011년 서울 초연 후 대한민국 연극대상 등을 수상했던 연극 '푸르른 날에' 광주 공연.

지난해 진통을 앓았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올해 새롭게 수장을 맞이하면서 의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시립합창단이다. 2년간 공백을 때운 임한귀 신임지휘자는 학구적인 레퍼토리와 대중적인 곡들을 조화롭게 선보이면서 전석 매진 공연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특히 교향악단, 무용단 등이 함께 한 대작 '카르미나 부리나' 공연은 호평을 받았다.

이현세 지휘자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교향악단은 7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교향악 축제에 참여하고 부산마루국제현대음악제에서 연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워크북 'GSO TEEN'을 발간하고 지역 출신 젊은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협연 오디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밖에 창단 20년을 맞은 국악관현악단과 '동기호태' 등 신선한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 국극단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시립극단은 광주 1백년사 시리즈 '오방 최홍중'과 '나의 살던 고향은'을 무대에 올렸다.

지역 연극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극단 '얼·아리'의 '발톱을 깎아도'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시민의 '소작지'로, 1998년 제 16회 행사에서 진달래 피네가 '취선록'으로 대통령상을 받은지 16년만이었다. 양정인 씨와 노희설씨는 연출상과 최우수연기상도 함께 받았다.

올해 화제의 작품은 지난 6월 무대에 올랐던 연극 '푸르른 날에'였다. 5월 광주를 다룬 '푸르른 날에'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초연

된 후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하고 서울 공연 당시 매년 매진을 기록하는 등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작품. 광주 공연에서도 많은 이들이 색다른 5·18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박수 갈채를 보냈다.

또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인 광주로 알발레단의 '티핑 포인트 37.5', 서영무용단의 '작침'도 광주 지역민들을 만났다. 클래식 분야에서는 광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씨가 이끄는 '글로리피카 무지카'의 원전 연주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국 연주회를 시작한 서현일씨가 눈에 띄었으며 민간오케스트라 네오 필 창단연주회도 의미있는 행보였다.

다양한 문화 공간들도 잇따라 문을 열었다. 올해 창단 20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이 10년 만에 옛 터전이었던 광주시 동구 장동에 전용극장 '씨어터 연바람'을 재오픈했으며 호남대는 학교 내에 150석 규모의 팔라라 극장을 개관, 조중고 단체에 무료 대관했다. 또 총장로 1가 입구에는 복합문화 공간 '보헤미안'도 문을 열었다. 동명동에 위치한 '스토아'에서는 많은 전시와 공연이 열렸으며 국악방송과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또 진도에 위치한 남도국립극원은 올해 10년을 맞아 다양한 개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내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진행한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 시민 100명이 참여한 '광주 100%', '춘향전'을 새롭게 해석한 정은영 작가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안은미의 공연 등이 열렸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리 대화

합창단 '카르미나...' 호평

연극계
'발톱을 깎아도' 대통령상
'푸르른 날에' 광주 첫 공연

씨어터 연바람·보헤미안
문화공간 개관 잇따라

페스티벌 오! 광주
시선 끄는 작품 없어 아쉬워

'부케티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벤트도 눈에 띄었다.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던 반면 대담미술관과 유·스퀘어문화관 등 민간 단체들은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축제도 이어졌다. 광주예술난장 굿판, 광주세계아리랑 축전, 평화연극제 등 기존 행사와 더불어 광주사직포크음악제,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와 극단 시민이 함께 준비한 제1회 시민애(愛) 페스티벌 등이 새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 대표 공연 축제인 '페스티벌 오! 광주'는 관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작품들이 거의 없어 예산 확보등과 함께 프로그램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 1만명 넘게 다녀간 대인 예술 아시랑, 10년 맞은 점단골 열린음악회, 50회를 넘긴 클래식 감상실 다락의 하우스 콘서트, 70회를 마무리한 광주전남유리공부르기, 올해 다시 재개된 포엠콘서트 등의 행사도 눈에 띄었다.

그밖에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로시나 오페라 페스티벌 상연작 '월리엄 텔', 라이프치히 발레단의 '모던 타임스' 등 세계 유수 공연을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도 의미있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4문화향유 실태조사 중 관람률 부문에서 광주는 인천과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지만, 유료 티켓 구입은 광역시 중 꼴찌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동 발산마을 '예술 발산'



신호윤 작
'엄마 언제 와?
누나 빨리와!'

환경조형물 5점 설치...예술마을 탈바꿈 시작

광주 양동 발산마을이 예술마을로 탈바꿈을 시작한다. 2014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마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 5점의 환경조형물이 설치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발산마을 프로젝트 팀(대표 신호윤)이 공모에 당선돼 시작했다.

정상으로 오르는 1개 도로와 2개의 골목길에 설치된 작품들은 '별이 뜨는 발산마을'라는 주제로 마을의 꿈과 희망을 빛과 형상으로 표현했다.

강동호 작가의 '별을 찾아서'는 발산마을의 지도를 기본 형태로 하여 별(희망)을 찾아 떠나는 우주선의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박상현·이성웅

작가의 '별집(별전망대)'은 별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작품으로 발산마을의 지리적 여건과 LED 조명을 활용하여 마을의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백상욱 작가의 '발산을 지키는 영웅들'은 마을 주민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마을을 지키는 정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신호윤 작가의 '엄마 언제 와? 누나 빨리와!'는 발산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북적였던 시절을 회상하는 작업으로 일터로 나간 가족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최윤미 작가의 '발산마을 이야기'는 지금은 추억이 된 방직공장과 발산마을을 연결 짓는 뽕뽕다리 등 발산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원중 달거리' 송년 행사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2003년 첫발을 댄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수익금을 북한 아이들이 먹을 빵을 만드는 데 써왔다. 올해 11월까지 모금액은 890여만원. 이중 200여만원을 세월호 유가족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2003년부터의 총 모금액은 8360만원. 공연을 보고 간 이들이 넣어준 현상 모금과 온라인 모금, 구두담이 봉사, 무기명 후원 등이 모인 성금은 북녘어린이 영양팽공작 사업본부에 전달됐다. 김원중의 달거리 올 마지막 행사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축복'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장세남 연주자 이영훈씨가 출연한다.

무대 미술을 맡는 이는 서양화가 황순철씨다. 이번 공연에는 박상화의 미디어 아트, 주홍의 샌드애니메이션, 바다프로젝트(임용·김영훈·김현우), 광주알핀로제요들클럽, 느티나무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가 함께한다.



올해 김원중의 달거리는 다양한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4월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고 5월에는 양림교회를 기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8월에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을 기념했으며, 9월에는 제일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60만명의 트라이' 영화를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토요상설공연 작품 공모

전통문화관, 30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대표이사 서영진)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토요상설공연에 참가할 18개 공연작품을 공모한다. 토요상설공연은 전통문화관(서석당, 너털마

당)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국악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전통국악 기반의 가악, 성악, 무용, 연희, 클래식, 춤 등 퓨전 공연 등 소규모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공연장 무료대관, 소규모 음향·조명시설, 홍보물 제작, 공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마감은 30일.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www.geumsoojang.com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트라이슈머 시공,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